



# 보스턴, 월드시리즈 진출

## ■美 프로야구 AL 챔피언 7차전

미국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가 폭발적인 장타력을 앞세워 기적 같은 3연승을 거두며 3년 만에 월드시리즈 무대를 다시 밟았다.

2004년 월드시리즈 우승팀 보스턴은 22일(한국시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펜웨이 파크에서 벌어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7차전에서 일본인 투수 마쓰자카 다이스케의 호투와 더스틴 페드로이아의 쾌기 투런포를 앞세워 클리블랜드를 11-2로 대파하고 리그 정상에 올랐다.

1승3패로 벼랑에 몰렸던 보스턴은 무서운 파괴력을 자랑하며 5차전(7-1), 6차전(12-2)을 잡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이날도 결정적인 순간 터진 장타로 기어올라 월드시리즈 티켓을 따냈다.

## 1승 3패 벼랑 끝에서 기적 같은 3연승

## 클리블랜드 누르고 3년만에 정상 도전

이승은 2004년 뉴욕 양키스와 리그 챔피언십시리즈 7차전에서 각각 2승1패를 기록하며 월드시리즈 우승을 앞세웠다. 전신 보스턴 아메리칸리그 시절 포함 통산 12번째 리그 우승.

마쓰자카는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디비전시리즈 2차전, 클리블랜드와 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에서 각각 4.2이닝만 던지고 3실점, 4실점하며 포스트시즌에서 1패, 평균자책점 6.75로 부진했지만 이날 최고 시속 154km짜리 광속구를 앞세워 5이닝 동안 2실점으로 막아 포스트시즌 첫 승을 거뒀다.

2003년 월드시리즈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한 20승 투수 조시 벤텔(보스턴)은 이번 시리즈에서 2승무패, 평균자책점 1.93의 빼어난 호투로 리그 챔피언십시리즈 MVP에 뽑혔다.

보스턴은 시즌 막판부터 포스트시즌까지 10승1패라는 놀라운 승률로 내셔널리그 챔피언에 오른 '기적의 팀' 콜로라도 로키스와 25일 오전 9시 펜웨이 파크에서 월드시리즈 1차전을 치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이승엽 이번 주 수술”

## “왼손 엄지손가락 인대”

## 日 산케이스포츠 보도

올 시즌 내내 왼손 엄지손가락 부상에 시달려온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사진)이 이번 주 수술을 받는다고 일본 스포츠 전문지 산케이스포츠가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승엽은 이번 주 도쿄 시내에서 왼손 엄지 인대에 메스를 댈 예정이다. 이승엽은 앞서 20일 샌프란시스코 펜 리그 결정전이 끝난 뒤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구단과 지정 병원 관계자가 만나 왼손 엄지 수술에 대해 논의를 하고 곧바로 수술 날짜를 잡을 예정”이라며 “빨리 치료해서 내년 전력에서 이탈하지 않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수술 날짜를 일찍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절염이 아닌 인대가 부분적으로 끊어진 상태로 알고 있고 자기공명영상(MRI)에도 잘 나타나지 않아 절개를 해야 정확한 상태와 치료 방법, 재활 기간 등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상에 시달리느라 올 시즌 정규리그 타율이 0.274, 30홈런, 74타점에 그친 이승엽은 수술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도려내고 내년 2월까지 3개월 휴식에 들어간다.

이로써 12월초 대만에서 열리는 2008 베이징 올림픽 예선전에는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이승엽은 “(대표팀이) 1차 예선에서 반드시 올림픽 본선 티켓을 따내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에서 이승엽 뿐만 아니라 다니 요시토모(34)와 니오카 도모히로(31) 등 주요 선수들도 고질적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조만간 수술대에 오른다.

다니는 오릭스 시절부터 자신을 괴롭혀온 오른쪽 팔꿈치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유격수 니오카는 이날 안에 정밀 검사를 거쳐 왼쪽 무릎 수술을 받을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가사와라 미치히로(34) 역시 왼쪽 무릎 부상에 시달리고 있지만 일단 수술을 받지 않고 올림픽 예선에 일본 대표로 참가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2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미 프로야구 클리블랜드와 보스턴의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7차전에서 승리한 보스턴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환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올 팬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팬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프로야구 KIA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주무동경기장 야구장에서 ‘2007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 시즌 환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 준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레크레이션과 체육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특히 조범현 신임 감독을 비롯해 코치진과 선수단 전원이 참석, 팬들에게 친인사를 갖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1, 2부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선 1부 프로그램으로 사진촬영 및 사인회와 OX 퀴즈, 짝짓기, 엉덩이 밀치기 등 각종 게임이 열리고, 2부에선 팬과 선수들이 함께 지난 시즌을 되돌아보는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또 팬과 선수들이 숨겨진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기자랑도 진행된다. 행사 마지막으로 행운권 추첨과 단체 기념촬영 등이 계획돼 있다.

이 밖에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겨울모자를 기념품으로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 KIA 27일 ‘호랑이 가족 한마당’

##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행사 마련

디지털 카메라, 백화점 상품권, 에버랜드 이용권, 사인볼, 유니폼, 타이거즈 점퍼, 안마기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한다.

이날 행사 참석 인원은 300명으로 제한되며, 접수는 구단 홈페이지(www.kiatigers.co.kr) 팝업창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경남 남해에서 전기 훈련 중인 KIA선수단은 3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27일 광주로 이동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잘 뿔 자신 있다면 취하거나 말거나”

술(알코올)에 취해 당구를 치거나 불링 공을 굴리면 doping 테스트에 걸릴까. 22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발표한 ‘2008년 금지약물목록 국제표준’에 따르면 올해까지 일부 불링 종목에서는 알코올이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장애인 불링을 제외한 나머지 불링 경기에서는 알코올이 doping테스트에서 제외된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다음해 금지약물목록을 전년도 9월 말에 발표한다. KADA가 이번에 발표한 ‘2008년 금지약물 목록’은 WADA가 지난달 22일에 공표한 내년 목록의 한글 번역본이다.

이 목록에 따르면 알코올은 특정 스포츠 종목에서만 금지된다. 알코올은 술을 마시면 경기 중 위험성이 커지는 양궁과 공수도, 근대5종, 모터사이클, 모터보트, 항공스포츠 등에서만 금지약물로 지정됐다. 불링은 내년부터는 장애인 불링에서만 알코올이 금지된다.

2005년까지는 당구도 포함되었지만 국제당구연맹의 요청에 따라 올해 이미 제외됐다. 물론 이는 술에 취한 채 당구를 쳐도 doping 테스트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일 뿐 국내 당구 경기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대한당구연맹 규정에 따라 1년 이하 출전 정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손 떨림, 신경예민을 막는 베타차단제도 일부 종목에서만 금지약물로 지정됐다.

## 내년 금지약물 국제표준

## 특정 종목만 알코올 금지



(09:30·SBS스포츠) 24일(수)

▲전국대학배구 종합선수권대회 준결승

(13:50·SBS스포츠) ▲07/08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3차전

▲07/08 프로농구(오리온스 : LG)(18:50·SBS스포츠·Xports)

▲07/08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3차전 (CSKA 모스크바 : 인테르난)

(01:30·MBC ESPN) (디나코키에프 : 맨체스터 Utd)

(03:30·MBC ESPN)

23일(화) ▲07/08 NFL(인디애나폴리스 : 잭슨빌)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Support' (작은 만남 큰 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 Gwangju.